



◆연극 '그사람 나를 보아도' 출연 배우들.

아름답고 순수한 동화같은 사랑

직장인 아마추어 연극동아리 'JOBNOM' 2010 동계공연

인천·경기지역 직장인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연극 동아리 'JOBNOM'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소풍'에서 공연을 올린다.

이번 공연에 올려지는 작품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연출 홍성인).

20년 전 먼저 떠난 아내에게 이민을 앞두고 작별인사를 하기위해 숲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펜션을 찾은 부자와 딸.

연극은 이들의 갈등 때문에 기출한 매사에 엉뚱한 한 여성이 펜션의 예약시스템의 오류로 같은 객실에 사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그 속에서 전설 같은 어른들의 사랑

애기와 미소처럼 피어오르는 가족 간의 따뜻한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한 웃음과 함께 한 편의 동화처럼 그려진다.

아마추어 연극동아리 'JOBNOM'은 지난 2007년 창단했으며, 창단 첫 해 참가한 '2007 근로자문화예술제 연극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에 참가한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는 '무대미술상'을 받아 참가한 대회마다 수상하는 쾌거를 이어왔다.

이번 공연은 아마추어 연극동아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장기공연(?)을 시도한 것이 특징.

아마추어 연극동아리 구성원이 직장인이라는 특성상 평일 공연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공연은 일반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올려왔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공연을 올리기 위한 연습기간(3~4개월)에 비해 실제 공연일이 적은 것이 늘 아쉬움로 남았다.

극단 'JOBNOM'에서는 이런 아쉬움을 회원 간의 협의를 통해 극복했고, 4개월간의 연습 끝에 이달 2주간의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 연출을 맡은 박상운 회원(29. 인천 부평동)은 "아마추어 연극동아리의 특성상 프로배우들이 보여주는 세련됨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인천시민들이 우리 동아리의 문화적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 공연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객들의 의사에 따른 후원금만 받는다. <공연문의: 010-6297-8404>



◆작년에 열린 추계공연 '졸녘기'의 한 장면.

동아리 활동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우리말 다듬기'

▷ 다듬고 있는 말

'아킬레스건(Achilles 腱)'

투표기간 : 1월 5일 ~ 1월 18일
- 투표 중인 후보어

① (절대)급소(어떠한 상대의 절대적으로 취약한 부

분)

- ② 결정적 빈틈(어떠한 상대의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
- ③ 취약점(어떠한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
- ④ 최대약점(어떠한 상대의 가장 큰 약점)
- ⑤ 치명(적)약점(어떠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net>)

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후보어를 제안해 주세요

다듬을 말 : '아이젠(eisen)'

제안기간 : 1월 5일 ~ 1월 18일

? 제안 : 후보어 제안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며 기간은 1월 18일까지이다.

▷ '이렇게 바뀌어요! (다듬은 우리말)'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 ▶ '닷글나눔터'

국립국어원은 "단문 메시지를 이용해 거리와 인종,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작은 누리집(블로그)을 가리켜 이르는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의 다듬은 말로 '닷글나눔터'를 최종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를 대신할 우리

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416건 가운데, '쪽글터', '쪽글누리', '쪽글나눔장', '닷글나눔터', '닷글터' 모두 다듬을 후보로 해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모두 1,5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쪽글터'는 321명(20%), '쪽글누리'는 231명(14%), '쪽글나눔장'은 183명(11%), '닷글나눔터'는 647명(41%), '닷글터'는 176명(11%)이 지지했다.

국어원은 이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닷글나눔터'를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의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알쏭달쏭 우리말

▷ '시르죽다'

「동」 ① 기운을 차리지 못하다. ② 네 살쯤 된 어린 거지는 시르죽은 고양이처럼, 큰 놈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김유정, 심청> ③ 기를 펴지 못하다. ④ 그녀는 가냘픈 한 가닥의 기대를 마지막으로 던져

보며 함참 후애야 시르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문구, 장한몽>

▷ '숯고리자다'

「동」 ① 용솟음치며 끓어오르다. ② 용광로 속에서는 빨간 쇳물이 숯고리지고 있었다. ③ 솥구쳐 오르다. ④ 뽕뽕 숯고리지고 있는 샴플.

▷ '간잔지런하다'

「형」 ① 매우 가지런하다. ② 하

관이 빠른 가름한 얼굴에 낫남이 준수한 그는 간잔지런하게 기른 코밑수염이 이미 반백이었다. <김일일, 불의 재전> ② 즐리거나 술에 취하여 위아래 두 눈시울이 서로 맞닿을 듯하다. ③ 뽕뽕이 밀려오는지 그는 눈이 점점 간잔지런해지기 시작했다.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은석 기자

'설맞이-한중연(緣)문화축제' 서울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중국 문화부(부장 차이우)는 한중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 공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설맞이-한중연 문화축제'를 후원한다.

한중연 문화축제는 2007년부터 주중 한국문화원, 주한중국문화원과 (사)한중문화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연 1회 북경에서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양국 최대 명절인 '설(春節)'을 앞두고 서울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한중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축제는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대극장에서 펼쳐질 한중 전통문화 전시와 양국 합동 축하공연으로 구성된다. 미술관에서 개최될 전시회에서 한국은 전통연, 한지공예, 직공예, 민화(호랑이), 전통

탈과 전통음식 전시와 체험, 그리고 태권도와 각종 관광자원을 선보이며, 중국은 그림자극, 전지공예, 전통 자수와 함께 중국 여러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1월 8일 전시회에 앞서 개최될 개막식에는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과 청용화(程永華) 주한중국대사, 주한 각국 외교관 등 80여명이 참여하며, 주한 각국 외교관들은 전시와 공연 및 체험을 통해 한중 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복지법제론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책의 특징

1. 시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9년 3월 이전)을 빠짐없이 찾아하여 반영하였다.
3. 열거형으로 1장까지 적힌 학예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각과별 확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안되는 사회복지법제 전공자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시험에 필요한 요약을 별도로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원격평생교육원 (Study.co.kr) 동영상을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02) 849 - 6157